

柏谷 金得臣의 청주 遊覽詩 고찰

송 기 섭*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청주 유람의 시세계 |
| II. 청주를 찾은 이유 | IV. 결론 |

< 국문 초록 >

백곡 김득신(1604~1684)은 17세기의 시인으로서 전국의 곳곳을 유람하면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백곡집』에 1594수가 실려 있다. 그 중 청주를 유람하며 지은 시도 수십 수가 보인다. 이 시에서 그의 서정과 감회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청주를 찾아 시심을 녹인 것은 그의 생활근거지였던 잣밭마을, 능촌마을, 율치가 모두 청주목에 접하거나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청주목의 친분 있는 관리나 騷客들과 자주 교류했으며, 특히 가장 가까운 친구인 명망한 시인 홍석기가 있었다. 즉 지리적으로 청주를 찾기가 용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 교분으로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인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의 시를 분류하고 청주 유람에서의 서정, 만남과 이별의 歡恨, 만주 홍석와의 우정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았다.

첫째, '청주 유람에서의 서정'에서는 백곡이 자연의 경관을 보고 이를 수용하는 정서적 함의를 살폈다. 이에 「伏次先君枕流亭十詠詩韻」과 「蜜巖洞」에서는 자연에 동화되어 그 흥취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천기의 조화와 자연과의 동화하는 심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 「鵲江」은 靜的으로 마음속에

* 선문대학교 강사 / sks4423@hanmail.net

가지고 있는 심정을 그리고 있다면 「次朴仲久韻西原」은 動的으로 자신 밖 주변 모습을 그리고 있다.

둘째, '만남과 이별의 歡恨'에서는 지인과의 만남과 이별에서 느끼는 작자의 심정을 살폈다. 「別淸牧沈文伯槐」과 「寄忠淸方伯」은 이별의 회한을 노래하고 있는데 「寄忠淸方伯」 8구의 '願把酒盈鍾'과 「別淸牧沈文伯槐」 결구의 '的應魂夢共悠悠'는 표현상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라도 만나서 그간의 회포를 풀고 싶은 염원이 깊이 배여 있다는 점에서 두 시구의 표현이 의미상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 「贈亞使申德夫厚載葵亭」 2수는 其一에서는 만남의 기쁨을, 其二에서는 이별의 회한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會者定離'의 天則을 깨닫게 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其二의 끝구의 '悵望'이다. 왜냐하면 悵望은 懸念과 상대적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훗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엿볼 수 있어 그의 심리적 상황을 가늠하게 하는 시어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만주 홍원구와의 우정'에서는 둘의 인간적 관계와 둘의 시풍에 관하여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당시 黨色이 다르고 시풍이 다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우정을 살필 수 있었다. 백곡의 「贈洪元九」 2수와 만주의 「喜金子公至」에서 둘의 관계가 친구로서, 시인으로서 우의가 매우 돈독함을 보여준다. 「寄洪元九」에서는 작시에 있어 만주가 天機와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하는 자신의 시풍과는 완전히 다른 西崑體의 시풍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관계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백곡은 청주를 드나들며 유람하고 교류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심정을 시로 남겨 놓았다. 여기에서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슬퍼하면서 이를 여과 없이 노래함으로써 그 여운이 깊게 느껴진다.

【주제어】 백곡 김득신, 청주, 유람시, 만주 홍원구, 만남과 이별

I. 서론

백곡 김득신(1604~1684)은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손자로 경상관찰사를 지낸 金緞와 사천목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안동김씨의 유수한 가문

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심한 천연두를 앓아 쇠약한 몸 때문에 비교적 늦은 1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학문에 입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문에 覺得함이 至鈍했던 까닭으로 학문을 하지 말라는 권유까지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부친의 격려로 이를 극복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문장가 택당 이식과 효종 등으로부터 극찬을 받을 정도로 명성을 떨쳤다.

현재 그가 지은 詩文은 전란과 재화로 많은 수가 유실되었음에도 1,594수의 시와 다수의 문장이 『백곡집』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 그의 시는 天機와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지어진 시로, 특히 詩語를 彫琢하는데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그만이 나타낼 수 있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그의 한시는 조선후기의 한시를 연구하는데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함에도 백곡의 문학과 관련하여 그 연구가 아직 요원하다는 생각이다. 1999년에 이재복의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졌고, 2006년 파미르 출판사에서 신범식의 『국역 백곡집 - 절구편』이 출간되면서 그의 인지도와 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많아지긴 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의 시문과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물로는 이재복의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¹⁾의 박사논문을 시작으로 그 이후 박사논문인 신범식의 『백곡 김득신 문학 연구』²⁾와 김광수의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양상 연구』³⁾가 있고, KCI급 국내학술지 논문으로는 「백곡 김득신 여문연구」⁴⁾의 5편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그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그의 연구가 활발히 이

1) 이재복(1999).
 2) 신범식(2007).
 3) 김광수(2010).
 4) 이영휘(1991).

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필자는 『백곡집』의 『백곡선조시집』책1, 2, 3, 4에 나와 있는 시 중에서 백곡이 청주에서 머무르며 지은 시와 청주와 관련하여 지은 시를 모아보았다. 이에 수십 수를 채집하였는데, 이 중 청주를 유람하며 느낀 서정과 청주를 유람하던 중에 이루어지는 人間關係事를 다룬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유람 중 느낀 서정과 만남과 이별에 대한 심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에 본고는 이를 수용하고 이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념과 감각적인 모습을 心象化해서 고찰해 보려한다.

Ⅱ. 청주를 찾은 이유

백곡 김득신은 竝川川을 사이에 둔 지금의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자밭 : 당시 목천현)와 수신면 장산리(당시 청주목)를 오가며 詩情을 닦았다. 그가 이곳에서 詩情을 닦게 된 것은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거처한 증조부 金忠甲(1515~1575)으로부터 연유한다. 김충갑은 서울에서 태어나 槐山 陵村 방아현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1546년(명종1년) 增廣試에서 丙科로 문과에 급제했다. 그러나 乙巳士禍 후 1547년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良才驛壁書事件⁵⁾에 연루됨으로써 유배 가게 되었다. 그래서 유배지로 온 곳이 청주의 梧竹村(현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이었고, 이곳에서 홀로 유배생활

5) 당시 외척 尹元衡세력이 반대파 인물들을 숙청한 사건으로 이를 을사사화라고 한다. 중종 말년부터 慶源大君의 외숙인 尹元老·윤원형의 小尹 일파와 세자의 외숙인 尹任의 大尹 일파 사이의 대립이다.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이 즉위하여 8개월 만에 승하하자 경원대군이 즉위했는데, 이분이 명종이다. 대리청정하는 문정왕후의 밀지를 받은 소윤들이 명종의 보위를 굳힌다는 미명 아래 윤임 등을 축출하자 홍문관과 양사의 사립파들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했다. 이에 윤임 등과 중친인 계림군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사립파들을 파직시킴으로써 정권을 장악했다. 이 일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 양재역에 '여자가 임금 위에 있고 간신이 그 아래서 국권을 농락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라!'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이에 문정왕후는 이 사건에 연루된 선비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다. 이를 정미사화라고도 불린다.

을 하고 있던 그는 유배지와 이웃한 잣밭마을 李成春의 큰딸 昌平李氏와 혼인함으로써 삶의 터전이 되었던 것이다.

증조의 휘는 忠甲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지평을 지내고, 좌찬성상락군에 추증되었다. 祖父의 휘는 시희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부평도호부사를 지냈으며, 홍문관전관에 추증되었다. 그의 아우가 있는데, 휘가 時敏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책선무훈봉상학부원군으로 시호가 충무공이며, 영의정에 추증되었는데, 祖考(김득신)의 養祖가 된다. 조고의 선고는 휘가 繼이고 호가 남봉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관찰사를 지냈으며, 이조참판겸오위도총부부총관에 추증되고 안흥군에 봉해졌다. 이를 祖考께서 (안풍군)으로 습봉한 것은 推恩을 입었기 때 문이다. 祖考의 先妣인 泗川睦氏는 정부인에 추증되었는데, 청과처사 현헌공 휘 세칭의 자손으로 이조참판 휘 詹의 딸이다.⁶⁾

여기에서 알 수 있듯, 당대에 인정받을 만큼 文才를 지닌 명문가의 집안이다. 백곡은 이러한 환경,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씬 없는 노력으로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았다. “매우 高潔하고 맑아 격조가 새롭고 울적이 기특해서 澤堂 李植과 北渚 金瑬가 다투어 김득신이 騷壇의 제일이라고 할 정도이다.”⁷⁾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 말이다. 또 그가 지은 시 「龍湖」를 읽은 효종은 ‘唐音에 넣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⁸⁾라고 극찬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만 보더라도 당시 백곡이 명망 있는 시인의 반열에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백곡집』에 실린 시 중에서 그가 방방곡곡을 유람하면서 그곳에서 느낀 서정적인 감정을 시로 읊은 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주도

6) 김행중, 『柏谷集』, 「柏谷先祖集附錄-行狀草」, “曾祖諱忠甲 文科持平 贈左贊成上洛君 祖諱時晦 文科富平都監 府使 贈弘文館典翰 有弟諱時敏 武科策宣武勳封上洛府院君 諱忠武公 贈鎮議政 於王考爲養祖也 考諱致 號南峯 文科慶尙道觀察使 贈吏曹參判兼五衛都總府副總管 封安興君 以王考承襲封君推恩故也 妣泗川睦氏贈貞夫人 青坡處士玄軒公諱世稱之孫 吏曹參判諱詹之女也”

7) 김현석, 『柏谷集』, 「柏谷先祖集附錄-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安豐君金公墓碣銘并序」, “詩甚高潔清 調新而格奇 澤堂李公植北渚金瑬公 競許騷壇第一”

8)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祖集附錄-搜錄」, “雖入唐音無愧”

자주 찾아 두루 유람하면서 그때마다 시로 읊어 남겼다. 그 시가 수십 수에 이르는데, 이처럼 청주를 찾아 유람하면서 곳곳에서 시를 읊은 것은 그가 청주라는 곳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어려서 학문을 연마하고 시정을 닦은 곳이 증조고가 유배되어 20여 년간 살았던 곳(당시 청주목 관할지로 지금의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이다.)이고, 아버지가 잠시 낙향하여 학문을 가르쳤던 곳이 그곳에 있는 桃汀講舍였다는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일생동안 생활의 거점이 되었던 잣밭마을, 능춘 방아현, 청안현 울치가 모두 청주목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능춘 방아현은 어릴 때부터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노년에는 억만재와 취묵당을 짓고 이곳에서 생을 마쳤고, 청안현은 그의 외가이며, 양조부 김시민의 봉지가 있으며,⁹⁾ 이곳에서 10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학문에 입문한 곳이다. 또 잣밭마을은 백곡이 詩情을 닦았던 도강정사와 川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리였던 것이다. 당시의 청주목의 관할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데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청주목은 淸安縣의 경계까지 42리, 같은 현 時化驛의 경계까지 44리, 남쪽은 文義縣의 경계까지 20리, 懷仁縣의 경계까지 24리, 報恩縣의 경계까지 22리, 서쪽으로 全義縣의 경계까지 54리, 木川縣의 경계까지 55리, 燕岐縣의 경계까지 38리, 북쪽으로 鎭川縣의 경계까지 32리이다. <중략> 靑川縣 고을 동쪽 60리에 있다. 옛날에는 薩買縣이었고, 靑川이라고도 하였으며, 고려 때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이 고을(靑州)에 소속되었다.¹⁰⁾

9) 백곡의 아버지 남봉 치와 그의 묘소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은 김치의 상여가 좌구산과 구녀산 사이로 난 분절치(옛 영남통로)를 넘어 한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 상여의 만장이 날아가서 이곳에 앉는지라 명당이라고 생각한 후손들이 이 자리에 묘를 썼다고 구전되고 있다(증평군 홈페이지)고하나, 당시 이곳은 양조부 김시민 장군의 공로로 封地를 받은 곳이다.(후손 김태호 증인, 현재 괴산읍 능춘리에 거주) 따라서 『深谷秘訣』을 저술한 당대 최고의 천문가로서 생전에 자신의 陰宅을 잡았을 가능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

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15, 「忠淸道, 靑州牧」: “東至靑安縣界四十二里 東縣時化驛界四十四里 南至文義縣界二十里 至懷仁縣界二十四里 至報恩縣界二十二里 西至全義縣界五十四里 至木

이를 현재 지역의 범위로 살펴보면 청주의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전체와 괴산군 청천면 일부(삼송리 제외), 천안시 수신면과 병천면 일부(송정리), 세종시 부강면 일부(산수리, 행산리), 대전시 동구 일부(내탑동, 사성동, 오동, 주촌동, 추동)를 포함하는¹¹⁾ 동서로 100여 리, 남북으로 거의 50리에 달하는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이 그가 청주목을 자주 찾았던 한 이유가 된다.

청주를 자주 찾은 이유 중 또 하나는 인적 교류 때문이다. 그가 作詩한 것을 통해 청주목의 관리나 騷客들과 회포를 풀면서 서정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시 「贈亞使申德夫厚載葵亭」, 「與西原使君遊壽樂亭」, 「別清牧沈文伯槐」, 「蜜巖洞」 외, 많은 시에서 이를 잘 보여준다. 특히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의 하나인 명망한 시인 홍석기가 있었다. 목천에는 박왕원, 청주에는 홍석기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다. 「送元九赴丹丘序」, 「贈洪元九」 등, 백곡의 글에서 그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Ⅲ. 청주 유람의 시세계

백곡은 청주의 곳곳을 찾으면서 그곳에서 느낀 자신의 심정을 시로써 유감없이 펼쳐 놓았다. 당시 청주목에 속했던 서쪽의 수신면으로부터 동쪽의 청천에 이르기까지 찾은 곳에서 화자의 감정을 유감없이 풀어내고 있다. 청주 권역에서 노래한 것이 수십 수나 될 정도로 많은 시를 남겼는데, 이 시들을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대체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가 청주의 풍광을 서정적으로 노래한 것이며, 또 하나가 인간적 관계에서 느끼는 所懷를 읊은 것이다.

여기에서 그려지는 그의 시를 살펴보면 한 면을 묘사하는데 있어 과장

川縣界五十五里 至燕岐縣界三十八里 北至鎮川縣界三十二里 <중략> 屬縣 淸川縣 在州東六十里 古薩買縣 一云青川 高麗改今名來屬

11) 『淸州市誌』 1권, 270면.

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짙게 녹여 넣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깊은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1. 청주 유람에서의 서정

청주목은 앞에서 말했듯이 범위가 타 郡縣과는 달리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청천도 청주목에 속했다. 이곳은 화양동, 선유동, 밀암동 등, 곳곳이 勝地이고 친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백곡은 이곳을 찾았고, 청천의 여러 곳을 유람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하고 있다. 그가 찾은 곳 중 桃源里는 安東金氏가 오백년을 世居한 곳으로써 부친 남봉도 찾아 「枕流亭十詠」을 남긴 곳이다. 백곡 또한 이곳에서 先考의 「침류정십영」을 차운해서 읊었다. 또 大田里는 증조고 김충갑이 거주했던 곳으로, 그곳의 친속들과 그 근방의 밀암동을 찾아 자연을 관조하며, 「밀암동」 3수와 「밀암동기」를 지어 그곳의 서정을 형상화하였다. 이 두 곳에서 읊은 시를 살펴보면 그의 인간미와 시인으로서의 감성이 잘 나타난다.

백곡은 도원리의 침류정을 찾아 오래전에 선고께서 「枕流亭十詠」을 노래한 것을 차운하여 「伏次先君枕流亭十詠詩韻」의 지었는데, 그 중 其二 ‘鍾潭釣魚’을 놓고 비교해 보면 詩作에 있어 부친의 영향을 지대했음을 느끼게 한다.

垂釣坐筇磯 이끼 낀 물가에 앉아 낚싯대 드리워서
霜鱗貫之柳 잠은 은빛 고기 버들가지에 꿰어 놓았네.
未逢六州王 아직 육주의 왕을 만나지 못하고
空老經綸手 큰 포부 가진 사람 헛되이 늙어만 가네.¹²⁾

亭下澄潭畔 정자 아래 맑은 못가

12) 김 치, 『남봉선생집』 卷1, 「枕流亭十詠」.

漁磯隱翠柳 낚시터 푸른 버들에 가리어졌을 뿐.
 莫言人已亡 인제가 없다 말하지 마시게
 復有持竿手 돌아와 낚시대 잡은 사람 있다오.¹³⁾

부친인 남봉은 한때 大北으로 몰려 잠시 유배되었다가 풀린 적이 있었는데,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아마도 이때를 즈음하여 이곳을 찾은 듯하다. 정자에서 세월을 뉘으며 다시 부름을 받고자 하나 진정 자기를 알아 불러 주는 왕이 없음에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점점 늙어 감을 한탄하며 이를 아쉬워하고 있다.

이에 백곡도 先考의 그때 일을 회상하며 ‘보이지 않을 뿐, 때를 기다리며 부름을 기다리는 인제가 있음’을 호소하였다. 이는 곧 선고의 생각과 자신의 바람이 동일함을 피력한 것이어서 자신도 부름을 받고 싶은 의중을 은근히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枕流亭十詠」과 「伏次先君枕流亭十詠詩韻」의 내용이나 형태를 살펴보면 마치 한 사람이 읊은 것처럼 그 색채를 구분할 수 없다. 백곡이 부친의 시를 차운한 것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시적 패턴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시가 곧 詩中有畫 畫中有詩란 말처럼 詩라기보다 오히려 그림이라고 느껴질 만큼 직관적이며, 백곡은 선친 시에 자신의 시를 절묘하게 대비하여 시의 정취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¹⁴⁾

김득신은 天機와 사실성을 통해 생명을 조화롭게 읊은 시가 으뜸¹⁵⁾이라는 시론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시적 사상은 허균(1569~1618)과 장유(1587~1638) 등이 송나라의 엄우로부터 이어받은 천기론¹⁶⁾을 시풍의 주

13)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책1-伏次先君枕流亭十詠詩韻」.

14) 송기섭(2012), 64면.

15) 「終南叢志」에서 시의 본질을 “무릇 시는 天機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하여 스스로 조화의 공을 운용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시를 창작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적 표현에 큰 비중을 둔 것은 ‘寫景逼真’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16) 장유는 『谿谷集』卷6, 「石洲集序」에서 “시는 天機이다. 울림은 소리에서 나오고 화려함은 빛깔에서 나오며 淸濁과 雅俗은 自然에서 나온다. 소리와 빛깔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체로 삼으면서 그간 주도하고 있던 의고적 문풍을 비판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때 부친이자 스승인 김치도 「枕流亭十詠」 외, 「白鹿潭」, 「訪仙門」 등 다수의 시에서 같은 시대의 허균, 장유와 문학적 사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곡의 시 형식과 표현양상이 부친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음은 明若觀火하다.

백곡은 밀암동을 찾아 「蜜巖洞」 3수를 남겼다. 이곳은 도원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絶景地로 지금의 괴산군 청천면 대전리에서 2,3리의 거리에 있다. 대전리는 백곡의 증조부 김충갑이 거주했던 곳으로 증조부께서 가까운 거리의 밀암동을 자주 유람했는데, 그 때 그곳의 경치를 완상하다가 바위굴 속에 꿀벌집이 있는 것을 보고 밀암동이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그 후 백곡이 80여 년 만에 이곳을 찾아 유람하면서 시를 읊었는데, 이때 읊은 「蜜巖洞」에서 자연과 조화하려는 심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 시 3수 중 其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雲羃重岡暗 구름이 덮어 층층 언덕 어두운 데,
江通劈峽奔 강물은 협곡을 쪼개며 분주히 흐른다.
千林禽語集 온 숲에서 새들이 합창하고
萬壑雨聲喧 온갖 골짜기 빗소리에 시끄럽다.
怪石如龜伏 괴상한 돌은 거북이처럼 엎드려 있고
奇巖若虎蹲 기이한 바위 범같이 웅크려 있다.
淹留歸不得 이곳에서 돌아가지 않고 오래도록 머문 것은
端爲對清樽 사실 맑은 술둥이와 마주하기 때문이라.¹⁷⁾

‘重岡’, ‘劈峽’, ‘千林’, ‘萬壑’, ‘怪石’, ‘奇巖’ 등의 시어로 그곳의 평면적 풍광을 청각적인 ‘禽語’, ‘雨聲’, 시각적인 ‘龜伏’, ‘虎蹲’에 술이라는 미각을 가미하여 그곳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일체화함으로써 그곳에서 느끼는 풍광의

낼 수 있지만 天機의 묘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詩天機也. 鳴於聲, 華於色澤, 清濁雅俗, 出乎自然. 聲與色, 可爲也 天機之妙, 不可爲也)라고 했다.

17)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卷3-蜜巖洞.

멋과 술맛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만약 뛰어난 풍광이라 하더라도 향기로운 술이 가미되지 않았다면 그 흥취는 低減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백곡은 「蜜巖洞記」를 지어서 위 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긴 모래밭이 평평하게 펼쳐져서 천군의 陣을 둘만하고 십여 아름의 먹줄을 맞지 않을 웅이 많은 푸른 소나무가 연이어 강의 좌우에 뻗어있다. 언덕과 산마루가 서로 중첩되어 솟구쳐 오른 것이 버티며 겨루는 듯하다. 12층의 누대는 강의 동쪽에 치솟아 우뚝하고, 푸른 산의 기묘한 형상은 비단 자락에 알록달록 수놓은 듯하다. 강물은 곧바로 누대 아래로 쏟아져서 흐르며 사나운 우레처럼 울부짖는다. 바위모양은 말 같고 용 같고 범 같이 악동하며 비상하여 투쟁하러 나아가는 듯하다. <중략> 강가에는 큰 반석이 있는데, 십여 인이 앉을 만하고 또 작은 바위는 우뚝해서 술독으로 삼고 향기로운 술을 담아 엮드려 마실 만하다. 청주의 뛰어난 승지로 대체로 西湖에서 최고라고 할만하다.¹⁸⁾

이 내용 중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위의 시 尾聯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미런 '淹留歸不得 端爲對清樽'을 「밀암동기」에서의 '小石爲窪罇. 可盛醞醕而俯飲矣'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詩에서는 단순하게 '술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으나, 記에서는 '우뚝하게 패인 바위에 술을 가득 담아 놓고 술을 마시는데 잔으로써 대작하지 않고 몸을 구부려 이를 마셨다'고 했다. 한 작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지은 시와 글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를 수 없다. 이는 시의 미런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술 때문만이 아님을 알게 한다. 따라서 詩의 尾聯에 記의 이 구절을 포함시켜야 백곡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이 만들어준 풍광을 술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몸속으로 흡입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그곳의 풍광에 흠뻑 동화되어

18)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5-蜜巖洞記, “長沙平鋪 可設千軍之陣 百尺蒼松 擡種不中繩墨者連延江之左右 重岡複嶺 騰突掌拒 十二層臺 屹立于江之東 蒼翠詭狀 綺縵繡錯 江之流直走于臺之下而急若飛箭 吼若獠雷 石形如馬者如龍者如虎者將動將翔將翻 <중략> 江之濱有大盤石 可容十餘人之坐 又小石爲窪罇 可盛醞醕而俯飲矣 蓋西原之勝 槩甲於西湖”

한 몸이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괴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래도록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의 풍광에 흠뻑 젖어 있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었음을 나타낸 역설적 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법은 백곡이 시의 결구나 미련에 자주 이용된다.

위의 시는 풍광과 자신이 잘 조화되어 있는 天機의 품격을 강하게 지닌 시라고 평할 수 있다면 다음의 시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지은 시이다. 그 시가 바로 「鵲江」인데, 鵲江은 곧 '까치내'를 이르는 말로 청주 중심을 흐르는 무심천이 까치내로 흘러와 미호천을 지나 금강으로 흘러드는 강이다.¹⁹⁾ 이 내[까치내(鵲江)]는 목천현에서 청주 성내로 들어오는 길목이 된다. 이에 「鵲江」을 지은 시점을 추정해 보면 백곡이 木川에서 玉山을 거쳐 청주로 들어오는 여정 중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沙步立騎馬 모래밭을 건다가 멈춰선 기마
扁舟其奈無 내 건널 작은 배가 어찌 없는가.
僮人愁渡水 사동은 물 건널 것을 걱정하고
客子歎窮途 나그네 막다른 길임을 탄식한다.
雪盡春初動 봄기운 불어오기 시작하자 눈 모두 녹고
鳥棲日欲哺 해 지려하자 까마귀마저 깃드는데...
今宵何處宿 오늘 밤 어디에서 투숙할까.
孤館古城隅 고성 밖 모퉁이에 외로운 주막 있구나.²⁰⁾

주변 환경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자의 속마음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물을 건너지 못해 수심에 차 있으면서도 '고성 밖 주막에서 하룻밤 보내리라'는 그의 모습에서 마음의 여유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를 주고 있으며, 또 수, 함, 경련에서 오는 초조감, 불안감을 미련에서 반전시키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시의 묘미를 즐기게 한다.

19) 김미선(2012), 92면.

20)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卷3-鵲江.

즉 수련에서는 원인을 말하고 있고, 함련에서는 이에 대한 수심을, 경련에서는 시간적 축박함을 내보이며 전진궁궁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미련에서 反轉美를 절묘하게 보여 줌으로써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俗諺을 생각하게 한다.

「次朴仲久韻西原」 3수는 앞에서 언급한 시와는 달리 청주의 성내를 유람하면서 그 모습을 친구 박장원의 시를 차운해서 지은 시로 이 시 역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지은 시이다. 그러나 「鵲江」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정을 靜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비해, 이 시에서는 자신 밖 주변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天邊何處是歸程	하늘 가 어느 곳이 돌아갈 길인가.
獨倚危欄極望平	홀로 아찔한 난간에서 바라보니 끝이 없도다.
岳勢中分環古鎮	산세는 나뉘어져 옛 도시를 두르고
江流直走蹴層城	강은 흘러 곧바로 층층성벽을 치고 달린다.
東南大賈爭趨市	동남쪽 대상들은 다투어 저자에서 분주하고
文武雄才各擅名	문무의 뛰어난 인재들은 각각 명망이 높은데...
此地幾廻經戰伐	이곳에서 몇 날을 기다려야 전쟁이 지나가려나.
不堪斜日却含情	비긴 해가 품은 정마저 멎게 하니 견딜 수가 없네. ²¹⁾

함련에서는 ‘岳勢’와 ‘江流’처럼 사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 경련에서는 ‘大賈’와 ‘雄才’처럼 인간의 역동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역동성은 그 시대의 상황을 三者의 人和 物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위급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의 서술방식인 3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한 예라 하겠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함련과 경련에 시구를 배치한 것은 미련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때 일어난 ‘戰伐’이 1636년에 일어났던 병자호란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한 상황임을 말한 것이다.

이로 인한 난리로 백곡은 선주로 피란 갔다 돌아오는 도중, 잠시 청주에 머물 때이며, 박장원 역시 그 해 별시문과 을과에 급제했으나 임관하

21)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卷4-次朴仲久韻西原.

지 못하고 외조부를 따라 강화도로 피신하고 있을 때이다. 그러므로 같은 처지의 박장원을 생각하고 그의 시에서 차운하여 청주를 유람하며 본 것을 서술한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구당과 이를 공유하고 싶은 간절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次朴仲久韻西原」, 其三의 미련에서 보여준다. “林園悵望歸期阻(돌아갈 기일이 막혀 정원에서 맥없이 바라보며) 每向親朋說客情(매번 친구를 향하여 객정을 중얼거리곤 한다네.)”²²⁾라고 한 것이다.

2. 만남과 이별의 歡恨

누정은 그곳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사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이곳에 참여하여 회합할 수 있게 하는 불문의 조건이 있었다. 즉 신분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위치에서 經學적 식견과 문학적 소양에 의한 대화가 상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정은 儒家의 정신과 결합하여 풍류를 즐기면서 심신을 달래는 공간으로써, 학문적 이념을 토론하고 세상의 일상에 대하여 대화하는 곳이다. 또한 자연과 교감하면서 浩然之氣를 기르는 쉼터로써 활용됨으로써 이곳이 만남과 이별의 장소로 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²³⁾

백곡도 청주에서 지인과의 만남과 이별이 거의 성내 관아의 누각이거나 주변의 樓亭에서 이루어졌음을 그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명문가 집안의 사람으로서, 명망 있는 騷人으로서 그의 수준에 맞는 지인과 청주의 누정을 찾았으며, 그곳에서 만남의 환희와 이별의 회포를 노래하고 있다. 그의 시 「別淸牧沈文伯榭」를 살펴보면 청주목사 심문백과 누각에서 만나 이별주를 마시며 서로 잊지 않을 것을 기약하고 있다.

22)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4-次朴仲久韻西原.

23) 송기섭(2016), 210면.

天寒醉別仲宣樓 쓸쓸한 날 중선루에서 이별주에 취하니
 畫角聲中倍客愁 화각소리 속에 나그네 시름 갑절이네.
 大麓西原相憶處 대륙과 서원에서 서로 기억한다면
 的應魂夢共悠悠 응당 꿈속에서라도 만나서 함께 장구하리라.²⁴⁾

이별의 회한을 노래한 시로 서경적인 '天寒', '畫角聲中'에서 몹시 우울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바로 이별의 장소가 중선루인 것이다. 仲宣樓는 아마도 望仙樓와 함께 청주관아 내에 있었던 누각으로 사료되나 기록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다. 심황은 승정원일기 134책, 효종6년(1655년)에 청주 목사에 임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백곡의 나이가 49세였고, 목천현 가전리에 거주할 때이다. 그래서 각각 대륙(목천의 별칭)과 서원에서 각각 거주하면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잊지는 말자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결구를 보면 '的應魂夢'이란 말에서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듯 슬픔에 잠기게 만든다. 꿈이란 너무나 상대를 간절히 원할 때 나타는 것인 만큼 이별 후 다시 會遇하고 싶은 간절함을 알게 한다.

이 시에서 백곡은 이별의 회한을 대화로 주고받는 느낌을 주고 있으나 「寄忠淸方伯」에서는 이별의 회한을 독백하는 모습으로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어 「別淸牧沈文伯槐」와 비교해 봄직하다.

苦憶西湖伯 괴로움에 충칭 방백을 생각하니
 何時更得逢 어느 때나 다시 만날 수 있을 런지.
 離愁添萬斛 이별의 그리움 만곡을 더하고
 別夢越千峯 이별의 꿈 천봉을 넘었다네.
 縱闕容顏對 비록 대궐에서 얼굴을 마주했고
 頻投札翰封 자주 서한을 봉하여 보냈지만....
 新春錦江上 봄이 오면 금강 가에서
 願把酒盈鍾 술병을 잡고 술잔을 채우기를 원하네.²⁵⁾

24)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책2-別淸牧沈文伯槐.

25)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책3-寄忠淸方伯.

청주목사 심황과 이별하면서 느끼는 회한은 필시 충청 방백과의 이별에서 오는 회한과 분명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함련에서처럼 '이별의 수심이 만곡을 더하고, 이별의 꿈이 천봉을 넘을 정도'의 시름을 「別淸牧沈文伯槐」의 승구에서 '화각소리'로 대변하였고, 경련에서는 '비록 대궐에서 얼굴을 마주했고, 자주 서한을 봉하여 보냈지만'라고 하며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지만, 「別淸牧沈文伯槐」에서의 전구 '대륙과 서원에서 서로 기억한다면'으로 위안 삼고 있다. 또한 「別淸牧沈文伯槐」에서의 '的應魂夢共悠悠'은 「壽淸方伯」의 미련처럼 만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면서도 이를 절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두 시는 표현만 다를 뿐, 백곡의 만나지 못하는 아쉬운 심정은 대동소이했음을 알 수 있다.

만남의 즐거움도 있다. 만남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가치를 더해준다. 공자께서도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바야흐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라고 했다. 따라서 만남이란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가치 있는 회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贈亞使申德夫厚載葵亭」2수에서 이를 말해주고 있다. 백곡은 규정 신후재(1636~1699)보다 30년 위의 연령이지만 나이를 뛰어넘는 친분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학식과 시문으로 대화 상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규정의 시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門前芳草綠初肥 문 앞, 꽃다운 풀 푸른 빛 짙어지고
籬外桃花紅未稀 울 밖, 복사꽃 붉은 빛 진해지는데...
罷釣歸來溪路晚 낚싯대 거두고 저문 시내 셋길 접어드니
一輪明月照蘿衣 둥근달 밝은 빛 갈옷을 비춰주네.26)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오로지 보이는 사실 만을 그대로 스케치하듯 붓

26) 신후재, 『규정집』, 「龍潭竹枝詞」, 장지연, 『大東詩選』卷5.

으로 옮겨 놓았다. 백곡의 시에서도 역시 이러한 풍의 자연시를 볼 수 있어 백곡이 추구하는 시론에 규정의 시가 잘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학으로써의 취향점이 같음을 의미한다. 문학으로써의 취향점이 같음은 정신적 교감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가 통하고 시문이 통하는데 연륜 따위가 어떤 문제가 되겠는가. 백곡은 규정을 忘年之友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규정과의 만남에 백곡은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러한 심정이 「贈亞使申德夫厚載葵亭」其一에 잘 드러난다.

偶爾逢迎處 우연히 마주하는 곳에서 만나
 持杯共滌愁 술잔을 들고 함께 시름을 씻는구나.
 雁聲江北浦 강의 북쪽 물가에서 기러기울음소리 들리고
 燈影郡西樓 고을의 서쪽 누각에 등불 찬란하다.
 雄辯今宵快 수준 높은 대화는 오늘 밤을 상쾌하게 하고
 情書幾日投 정 담은 글은 며칠을 머물게 했는가.
 應成寒碧會 응당 한벽회를 연다고 하는데
 何憚道途悠 어찌 길이 멀다고 꺼리겠는가.²⁷⁾

만남의 기쁨은 바로 경련에 그 素材가 있다. '雄辯', '情書'가 이것이다. 만남의 즐거움과 이별하기 싫은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또 둘의 친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 미련에서도 나타난다. 바로 '寒碧會'이다. 한벽회는 한벽루에서 벌이는 詩社를 말한다. 당시 청풍의 한벽루에서 정기적으로 騷人들과 함께하는 詩社가 있었는데, 백곡은 寒碧樓의 騷壇을 이끌어 가는 위치였으며, 신후재 역시 젊은 나이지만 寒碧樓 騷壇의 일원으로서 명망이 있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형성으로 서로가 술잔을 주고받으며, 만남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자신의 시름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會者定離'인 법이다. 그래서 만남의 기쁨도 잠시일 뿐이다. 이러한 그의 심정이 이 시 其二에 보인다.

27)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卷3-贈亞使申德夫厚載葵亭.

西原公館夜 서원 관청의 밤에
 中酒此華茵 술에 취하니 이곳이 비단자리로다.
 燭淚不緣恨 촛불의 눈물 한스러움에 연연하지 않고
 眼花非待春 눈의 꽃 봄을 기다린 것이 아니리라.
 仙娥顏似玉 기녀의 얼굴은 옥 같고
 詞客鬢如銀 문객의 귀밑머리 은과 같구나.
 明發分携後 날이 밝아 이별한 후에
 令儂悵望頻 내, 멍하니 내다보는 일이 잦겠구나.²⁸⁾

수, 함련에서 눈앞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함께 대작하며 흠뻑 취해 있다. 이는 곧 기쁨과 즐거움에 흠뻑 취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술 마신 量이 기쁨과 즐거움의 量인 것이다. 이를 '眼花'로 표현하고 있다. 眼花는 원래 눈앞에 볼뚱 같은 것이 어른어른 보이는 老眼의 증세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규정과의 대작하는 즐거움으로 술에 취해 앞에 있는 기녀가 어른거림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만남의 기쁨이 크면 이별의 슬픔도 큰 법이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이별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별의 회한을 '悵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절묘하다는 생각이다. 아마도 『詩經』 「召南」편의 시 "未見君子(그대 만나지 못해)/ 我心傷悲(내 마음 앓는구나)/ 亦既見止(이윽고 보고 함께 한다면)/ 亦既覯止(이윽고 만나 함께 한다면)/ 我心則夷(내 마음 곧 편안할 텐데...)"²⁹⁾라는 심정을 '悵望'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悵望'은 백곡이 이별한 친구를 몹시 그리워할 때 표현하는 시어이기 때문이다. 「次朴仲久韻西原」, 其三의 미련에서 "林園悵望歸期阻"라고 하고 있는 데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28)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朝文集」책3-贈亞使申德夫厚載葵亭.

29) 『詩經』, 「召南3」, 草蟲3장.

3. 만주 홍원구와의 우정

晩洲 洪錫箕³⁰⁾는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남원목사로 임기를 마친 뒤 청주 판교리(청주시 미원면 수산리)에 자리 잡아 후운정(後雲亭)을 짓고 여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백곡이 만주의 초대로 후운정에 올라 「後雲亭記」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며칠 전 내가 청주에서 손님으로 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마침 홍석기를 만나 이끌리다시피 금단산에 들어가게 되었다. 후운정에 올랐을 때 해가 지려 하였는데, 석기가 나에게 일러 말했다. “저 물가에 우뚝 솟은 것은 선대라고 부르고, 저 누대 곁 그리 높지 않은 공간에 의탁하고 있는 것은 낙월봉. 저 뾰족하게 발처럼 생긴 것은 가야봉, 저 푸른 석반의 뺨 같은 것은 학단이라 부르고, 가운데는 높고 길게 굽어져 있는 것은 횡금봉이다. 고운 최치원이 일찍이 逍遙遊하던 곳으로 가히 사랑할 만해서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정자를 짓고 여생을 보내려고 한다.”라고 했다.³¹⁾

후운정이란 명호는 孤雲 崔致遠이 일찍이 세상의名利를 버리고 이곳으로 와서 소요유하던 곳으로 그 높은 뜻을 잇기 위하여 정자를 짓고 이름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만주를 백곡은 친구로서 우의를 깊이 했고 문인으로서 존경했다. 바로 「贈洪元九」 2수에서 백곡과 만주의 관계를 알게 해준다.

吾友南陽大姓洪 내 친구 남양의 명문가 홍씨
隋珠趙璧藏胸中 가슴 속 수후의 구슬과 화씨의 구슬이 있어
時時吐出光如月 때때로 토해내면 빛나기가 달과 같아

30) 홍석기(1606~1680)는 본관은 南陽, 자는 元九, 호는 晩州, 경상남도 고성 출신이다. 저서로는 『晩洲集』과 『尊周錄』이 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孝定公이다.

31) 김득신, 『백곡집』, 「柏谷先祖文集책5-後雲亭記」, “日者余寄客西原也 適值元九之至 遂被牽入黔丹山 登後雲亭 日將暝也 元九謂我曰 彼水邊突兀者 喚仙臺 彼臺之側倚半空者 落月峯 彼尖簾者 伽耶峯 彼翠石盤陀者 喚鶴壇 彼穹窿者 橫琴峯 孤雲曾所遊而無不可觀可愛 故吾作亭於此 欲送餘年”

百鬼皆驚走避同 온갖 귀신 모두 놀라 함께 도망가네.

今代吾君騷苑伯 나의 그대는 당대 문단의 우두머리
 錦肝繡口煙霞生 금간수구에서 연하를 뿜어낸다.
 煙霞閉塞乾坤晦 그 연하 꼭 막히면 천지가 어두워져
 日月清光不得明 밝은 해와 달빛도 제구실 못하리라.³²⁾

이 시의 시어 ‘吾友’, ‘吾君’에서 만주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특히 ‘吾君’이라는 표현이 더욱 그들의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만주 역시 그의 시 「喜金子公至」에서 “不見吾君思見君(나의 그대 만나지 못해, 그대 만날 것을 생각했는데)”라고 하여 그도 백곡과의 관계가 심적으로 매우 깊은 사이임을 말하고 있다. 사실 ‘吾君’이란 말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아마도 둘의 사이를 가장 가깝게 표현하려는 생각에서 사용한 造語로 여겨진다.

그러나 만주는 시의 氣風에 있어서는 백곡의 소박한 시풍과는 달리 서곤체의 화려한 시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곡은 그의 시를 ‘錦肝繡口’라고 평한 것이다. 백곡과 만주의 聯句를 살펴보면 둘의 시격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夜色蒼唐匹馬遲 柏谷 밤빛에 초목은 시들고, 필마는 더딘데
 路蟠重嶺石參差 晚洲 산길마저 구불구불, 고갯마루 둘은 들쭉날쭉.
 催鞭爲有丹溪約 晚洲 채찍 들어 재촉함은 단계의 약속 때문이네만
 赤葉黃花共酒卮 柏谷 예서 단풍, 황국과 함께 술잔을 나누리.³³⁾

여기서 화려함의 의미는 표현상으로는 언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모양새를 취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시에서 백곡의 구절은 錦肝繡口の 시어가 보이지 않고, 내용 자체가 소박할 뿐이나 만주의 시에서는 2구에서 ‘蟠重’, ‘參差’라는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화려하면서 物像의 변화를 느끼게

32)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祖文集책2-贈洪元九」.

33) 김득신·홍석기, 『柏谷集』, 「柏谷先祖詩集책2-與洪元九馬上聯句」.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과장되고 시의 격식이나 기품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만주의 이러한 시풍 때문에 백곡은 그의 시 「寄洪元九」에서 만주의 글재주를 진림과 비교하고 서곤의 한시체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春盡離懷鬱未舒 봄 다가도록 답답하게 이별의 회포 풀지 못하니
詩樓每憶接歡初 시루에서 처음 만나 즐거웠던 시절 늘 기억하네.
陳琳倚馬公能繼 진림의 글 솜씨 그대가 이었으니
肯數西崑獼祭魚 수달이 제사 지내듯 한 서곤체에 끼워 줄만 하여라.³⁴⁾

이 시는 백곡이 자신과 시의 기품을 달리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轉句에서 건안문학 七子 중 한 사람으로 倚馬之才를 지녔다고 칭송받을 만큼 뛰어난 진림의 글 솜씨를 만주가 계승했다고 평하고 있으며, 결구에서 만주의 시풍을 西崑의 한시체임을, 그리고 시어의 선택에 매우 고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西崑'은 宋代 초기에 唐末의 李商隱의 시풍을 본받은 楊億, 劉筠, 錢惟演 등의 한시체로써 화려한 시어를 즐겨 구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獼祭魚'는 수달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잡은 물고기를 사방에 늘어놓는다는 뜻으로, 시문을 지을 때 많은 참고서적을 벌여 놓음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만주의 화려한 시는 고심 끝에 이어지는 시임을 나타낸 것이다.

백곡은 만주가 은거하는 후운정에 갈 날을 무척 고대하고 있었다. 앞의 「후운정기」에서 '遂被牽入黔丹山'이라고 하고 하였으나 겸손의 미로 말한 것일 뿐이다.

백곡이 잠시 청주 성내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홍석기를 만나 비로소 고대했던 후운정을 찾게 되었는데, 「登後雲亭 眎洪元九錫箕」의 6수 중 其二에서 이러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다.

層厓飛快閣 층층 언덕의 날렵한 정자에

34)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祖文集』卷2-寄洪元九.

今日始攀登 오늘에야 비로소 기어올랐네.
 水訝鯨龍鬪 물은 사나운 용을 만나 싸우고
 山疑怒馬登 산은 성난 말처럼 뛰어올랐네.
 霜凋楓似錦 서리에 시든 단풍은 비단처럼 곱고
 雲捲月如燈 구름을 걷은 달은 등불처럼 빛나네.
 我豈陶韋手 내가 어찌 도연명과 위응물의 숨씨만 할까?
 題詩愧不能 시를 지으려 해도 능하지 못해 부끄러울 뿐이네.³⁵⁾

수련에서 후운정에 오기를 염원했던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목천엔 박중구, 청주엔 홍원구라고 할 만큼 우의가 돈독한 친구 만주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친구와 그간의 소회를 풀고 詩談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후운정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고 떠오른 시상을 목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어서 만주에게 보냈다. 그 시가 바로 「登後雲亭 謁洪元九錫箕」의 6수인 것이다.

만주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自遠方來한 친구와 함께 하는 즐거움을 오래 유지하고 싶었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만주가 이때 지은 「喜金子公至」인데, 시 제목부터 절구에 이르기까지 백곡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구구절절 뒤덮고 있다. 특히 시 제목 자체에서 논어의 한 구절을 생각하게 할 정도이다.

不見吾君思見君 나의 그대 만나지 못해, 그대 만날 것을 생각했는데
 見君還恐卽相分 그대를 만나니 다시 헤어질까 두려움이 밀려오네.
 催花雨亦留人意 꽃을 재촉하는 비는 또한 사람을 머무르게 한다는 뜻이라
 更看前峰一片雲 계속해서 앞산 한 조각의 구름만 바라보고 있네.³⁶⁾

그래서 만주는 앞산의 구름만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이는 비가 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모양새이다. 비가 내리면 친구를 떠나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35)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祖文集』卷3-登後雲亭 謁洪元九錫箕.

36) 홍석기, 『晚洲遺集』卷2, 「喜金子公至」.

그런데 백곡의 「후운정기」에 “내가 이 정자에 올라 3일 동안 머무르며 여러 봉우리의 운기가 아침저녁으로 모양이 변하는 것을 살폈다. 비가 오려고 하면 운기가 모여들어서 비를 내리고, 개이고자 하면 여러 봉우리의 운기가 흩어져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정자에 머무른 3일 동안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³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과 마음이 통한 것일까?’ 그야말로 이 시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췌기를 박은 듯 명쾌함이 느껴진다.

IV.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곡 김득신은 청주를 유람하면서 그가 느낀 서정과 감회를 遺憾없이 읊고 있다. 그는 청주와 관련한 수십 수의 비교적 많은 시를 남겼는데, 이렇게 청주를 찾아 詩心을 녹인 것은 그의 생활근거지가 모두 청주목에 접하거나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청주목의 친분 있는 관리나 騷客들과 많은 정감을 나누기 위함이었으며,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의 하나인 명망 있는 시인 홍석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지리적으로 청주를 찾기가 용이했고, 인간적 교분으로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인사가 많았던 곳이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그의 시를 청주 유람에서의 서정, 만남과 이별의 歡恨, 만주 홍석와의 우정과 관련하여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의 심정을 분석해 본 것이다.

첫째, ‘청주 유람에서의 서정’에서는 백곡이 자연의 경관을 보고 이를 수용하는 정서적 함의를 읽고자 했다. 이에 「伏次先君枕流亭十詠詩韻」과 「蜜巖洞」에서는 자연에 동화되어 그 흥취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내고

37) 김득신, 『柏谷集』, 「柏谷先祖文集後冊5-雲亭記」, “余登是亭而留三日 觀諸峯之雲朝暮變態 欲雨則諸峯之雲族而雨 欲霽則諸峯之雲散而不雨 留是亭三日 無日不雨矣”

있으며, 천기의 조화와 자연과의 동화하는 심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또 「鵲江」은 靜的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정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면 「次朴仲久韻西原」은 動的으로 자신 밖 주변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내용상 대조를 이루고 있다.

둘째, '만남과 이별의 歡恨'에서는 지인과의 만남과 이별에서 느끼는 작자의 심정을 살폈다. 「別淸牧沈文伯樞」과 「寄忠淸方伯」은 이별의 회한을 노래하고 있는데 「寄忠淸方伯」 8구의 「願把酒盈鍾」과 「別淸牧沈文伯樞」 결구의 「的應魂夢共悠悠」는 표현상 서로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라도 만나서 그간의 회포를 풀고 싶은 염원이 깊이 배여 있다는 점에서 두 시구의 표현이 의미상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 「贈亞使申德夫厚載葵亭」 2수는 其一에서는 만남의 기쁨을, 其二에서는 이별의 회한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會者定離」의 天則을 깨닫게 한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其二의 끝구의 「悵望」이다. 왜냐하면 悵望은 懇念과 상대적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훗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을 엿볼 수 있어 그의 심리적 상황을 기늠하게 하는 시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도 다시 만날 것을 염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심정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셋째, '만주 홍석기와의 우정'에서는 둘의 인간적 관계와 서로 다른 시풍에 대해서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백곡의 「贈洪元九」 2수와 만주의 「喜金子公至」에서 둘의 관계가 친구로서, 시인으로서 우의가 매우 돈독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작시에 있어 天機와 사실적인 묘사를 추구하는 자신의 시풍과는 다른 西崑體임을 「寄洪元九」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듯 작시방법의 현격한 차이에도 서로를 인정하고 교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백곡은 청주를 드나들며 유람하고 교류하면서, 그때마다 느끼는 심정을 시로 남겨 놓았다. 여기에서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슬퍼하면서, 이를 여과 없이 노래하여 깊은 여운이 남겨 주고 있다. 이를 연구자하는 자로서 이러한 시에 좀 더 가까이하고자 골똥히 궁리하여 천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그렇지 못하고 미진한 연구결과를 내보인다는 생각에 몹시 안타까울 따름이다.

〈參考 文獻〉

『詩經』

『論語』

『新增東國輿地勝覽』

김 치, 『남봉선생집』.

김득신, 『柏谷集』.

김득신, 『安興君安東金公之碑』.

김행중, 『柏谷集』, 「柏谷先祖集附錄-一行狀草」.

신범식, 『국역 백곡집-절구편』, 파미르, 2006.

신후재, 『규정집』.

장 유, 『谿谷集』.

장지연, 『大東詩選』, 1918.

청주시, 『淸州市誌』, 「청주의 자연과 사람의 삶-자연·역사」, 淸州市刊, 2017.

홍석기, 『晚洲遺集』.

김광수(2010), 「김득신의 시론과 시의 관련 양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미선(2012), 「忠北 題詠詩의 양상」, 『한문고전연구』 제24집, 한국한문고전학회, 73~101면.

송기섭(2012), 「天安의 樓亭詩 고찰」, 『한문고전연구』 제24집, 한국한문고전학회, 39~71면.

송기섭(2016), 「백곡 김득신의 누정시 연구」, 『한국고전연구』 제32집, 한국한문고전학회, 197~224면.

신범식(2007), 「백곡 김득신 문학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희(1991), 「백곡 김득신 여문연구」, 『어문연구』 제21집, 어문연구학회, 203~223면.

이재복(1999),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Poetry of Baekgok Kim Deuk-shin's Cheongju Travel

Song Gi-seop*

Baekgok Kim Deuk-shin was a poet of the 17th century. He left many poems while traveling all over the country. The "Baekgokjip" contains 1594 poems left while traveling. The number of poems related to Cheongju is relatively high, with dozens of poems related to Cheongju. He fully displayed the lyric and sentiment enjoyed in Cheongju. Jatbat Village, Neungchon Village, and Yulchi were all located near or near Cheongju-mok, which was the base of his life. As a result, it was natural to visit Cheongju and record the poem. There were many familiar officials and poets in Cheongju-mok. Hong Seok-ki, a renowned poet in Cheongjumok, was one of his closest friends. From the perspective of Baekgok, it was not only geographically easy to find Cheongju, but also there were many people who c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human interaction. Based on this, his poems were classified.

The following was described in relation to the lyricism in Cheongju, the meeting and parting, and the friendship with Manju Hongseok.

First, in "Reading in Cheongju," Baekgok looked at the emotional implications of accepting the lyric of nature. In 「Bok Cha Seon Gun Chim Ryu Gyeong Si Un」 and 「Mill Am Dong」, it is assimilated into nature and depicts the excitement in a picture, and the harmony of heaven and earth and the spirit of assimilation with nature are well illustrated. In addition, if "Jak Gang" is a realistic portrayal of one's feelings in a static way, "Cha Bak Jung Gu Un Seo Won" is a dynamic portrayal of one's surroundings, which is in contrast to its content.

Second, 'The Brightness of Meeting and Parting' examines the author's feelings in meeting and parting with acquaintances. "Byeol Cheong Mok Chim Mun Baek Hwang" and "Gi Chung Cheong Bang Baek" are poems about the repentance of parting. Although 「Gi Chung Cheong Bang Baek」 refers to 'Byeol Mong Wol Cheon Bong' in

* Lecturer of SunMoon University / sks4423@hanmail.net

the four districts and the sentiment toward it as 'Won Pa Ju Yeong Jong' in the eight districts, 「Byeol Cheong Mok Chim Mun Baek Hwang」 ended with 'Jeok Eung Hon Mong Kong Yu Yu'. Eight sections of 「Gi Chung Cheong Bang Baek」 replace the feelings felt in 「Byeol Cheong Mok Chim Mun Baek Hwang」. The second chapter of the 「Jeung A Sa Sin Deok Bu Hu Jae Gyu Jeong」 sings of the joy of meeting in the first and the second in the second, repentance of parting in the second part of the term. It makes to us realize the laws of 'People you meet always break up. A broken-up man will surely return someday.' here.

Another thing to note is the "stare vacantly at (悵望)" at the end of the second chapter. Because "to think hard(懇念)" and "stare vacantly at (悵望)" are relative meanings, but here they include "to think hard(懇念)"'s meaning, which makes it a poetic word to gauge his psychological situation.

Third, 'Friendship with Man Ju Hong Won-Gu' compared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eople and their poetry. First of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Zeung Hong Won Gu" of Baekgok and "Hui Kim Ja Gong Ji" of Man Ju shows that friendship as a friend and a poet is very close. However, 「Gi Hong Won-Gu」 says that 「Syeo Gon Che」 is different from his own style of poetry, which seeks genius and realistic portrayals in writing.

As such, Baekgok enjoyed sightseeing and communing in and out of Cheongju, leaving the feelings of the city. The lingering imagery is deeply felt here by singing it without filtration, sometimes admiring, sometimes happy, and sometimes sad.

【Key words】 Baekgok Kim Deuk-shin, Cheongju, A traveling poem, Manju Hong Won-gu, Meeting and parting

투고일 : 11월 17일, 심사완료일 : 12월 7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

